

# 광주 AI 산업 생태계 조성 속도

### 시 AI사업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협약...AI데이터센터 활용 인력 양성·실증지원 협력

광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사업단)은 지난 22일 광주시 북구 AI사업단 회의실에서 광재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직무대행,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국가 인공지능 생태계 거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I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AI 산업 융합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상호 보완적인 기업 및 기관, 인적 자원과 AI 데이터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세부 내용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AI 산업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협력 ▲AI 산업 육성 및 실증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AI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필수 자원 및 개발 도구,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및 보안 서비스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AI사업단은 이번 협약으로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재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직무대행(오른쪽)과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지난 22일 광주 북구 AI사업단 회의실에서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AI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재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 융합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AI 산업 생태계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도와 광주시의 AI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미래산업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AI 신기술 활성화 법·제도 개선 박차

### 법제처, 광주시와 간담회...국가AI데이터센터 방문도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콘텐츠 저작권 등 개선방안 논의

광주시와 법제처가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와 법제처는 "지난 15일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을 나누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법제처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AI) 특화 데이터센터인 국가AI데이터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100과 데이터센터 성능·기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광주시와 법제처는 인공지능 산업 및 데이터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및 콘텐츠의 저작권 등 관련 법·제도 정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생생형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을 소개하고 국가AI데이터센터와의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공지능(AI) 창업기업 등은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의 법·제도 관련 어려움을 토로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창업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트라우마센터 '치유의 인문학' 운영

### 26일 전일빌딩245...박구용 교수 '인권의 즐거움' 강연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6일 오후 7시 전일빌딩 245 다목적강당에서 올해 첫 '치유의 인문학' 강좌를 연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와 치유 공동체 조성을 위한 치유의 인문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1000여 명의 시민이 강좌에 참여했다.

올해는 26일 오후 7시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의 '인권의 즐거움', 4월 30일 오후 7시 민중미술가 홍성담 화가의 '꿈에서 만나는 트라우마' 등 두 차례 열린다.

강좌 참여 희망자는 광주트라우마센터(062-

601-1978)를 통해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치유의 인문학 강좌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국가폭력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인권 존중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정석희 광주시 5·18민주과장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시민의 공감, 연대, 지지가 중요하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공동체 치유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시청서 어린이 문화공연 즐겨요"

### 광주시, 29일~6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삼성복지재단 후원...클래식·국악극 등 프로그램

광주시청 대회의실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어린이 문화공연장으로 변신한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꿈꾸는 작은 별들을 위한 어린이 문화공연'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삼성복지재단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광주유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1~2회 운영한다.

첫 공연은 오는 29일 오전 11시부터 40분간 열리며, 공연-예술-교육단체 '스윗 뮤직가든'이 '영유아를 위한 클래식'을 선보인다.

이어 ▲4월 26일 음악 사회적 기업 '루트머지'의 어린이 국악극 '방울이와 가야금' (오전 11시, 오후 1시) ▲5월 4일 '스윗 뮤직가든'의 '영유아를 위한 클래식' (오전 11시, 오후 1시) ▲6월 28일 광주 뮤지컬단 '다락'의 '어린이 안전뮤지컬' (오전 11시) 등 총 6회 공연한다. 모든 공연은 무료다.

광주시는 3, 4, 6월 공연은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가정의 달 5월에는 지역 유아동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유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유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https://gwangju.childcare.go.kr/cccf/main.jsp>)이나 전화(062-613-3635)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자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봄날의 햇살 같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공연을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공연이 영유아의 예술적 감성과 사회성 자극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광주유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부모와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상담, 영유아 신체검, 시간제 보육과 긴급이돌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도시공사, 시민 '집수리 학교' 운영

### 과정 수료 후 자원봉사

광주도시공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간단한 집수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 참여 집수리 학교'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중합주거복지센터 '2024 집수리 학교'에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수강생 20명이 참여하며, 지난 19일부터 총 8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집수리 이론, 공사 방법, 바닥 및 천장 보수 등의 실전 실습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집수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과정 수료 후 습득한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집수리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집이 단순히 거주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2024 집수리 학교' 수강생들이 지난 19일 첫 교육 과정인 집수리 이론 강의를 듣고 있다.

의 개념을 넘어 여가, 생활, 휴식 등 삶을 영위하는 복합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집수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 시, 26~27일 대형공사장 등

광주시는 "봄철을 맞아 26일부터 27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특별관리공사장 등 대형 공사장과 민원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방진망 설치, 토사류 운반차량 상부 덮개 설치, 세운·살수시설 적정 설치, 공사장 주변도로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단속기간 고의·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32곳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117곳을 적발했으며, 조치이행 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공사장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